

중국 명주, DBP 검출 파장 확산

주구이주, DBP 기준치 2.5배 초과 ... 주류 시가총액 8조원 감소

중국 10대 명주(名酒)의 하나인 주구이(酒鬼)의 공업용 첨가제 파문으로 중국 주류기업 시가총액이 8조원 가량 증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주구이 사태가 불거진 11월19-22일 4일 동안 중국 증시에 상장된 30개 주류기업의 시가총액이 436억위안(약 7조8000억원) 감소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환경호르몬 성분이 함유된 술이 주구이 뿐만 아니라 다른 술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주구이는 11월22일 저녁 환경호르몬 검출사태에 대해 소비자와 투자자들에게 사과를 하면서도 국가 생산기준 GB2757-1981, GB2760-2011에는 부합하고 인위적인 첨가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 Hunan의 50도짜리 주구이에 대한 품질검사에서는 환경 호르몬 성분 가운데 각종 플라스틱제 품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첨가제인 DBP(Dibutyl Phthalate)가 기준치의 2.5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

시장에서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다양한 첨가물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1/23>